

# ‘고향사랑 1위’ 동구, 지역 답례품 업체 매출도 ‘급증’

전년비 2.6배 증가, 24억원 모금  
남광주시장 업체 7천건 신청접수  
‘선순환’ 소문에 점포동참 이어져  
“경제 활성화·기부 만족 힘쓸 것”

광주 동구가 고향사랑기부금 전국 기초지자체 1위를 차지한 덕분에 답례품 업체인 지역 전통시장 점포의 매출도 덩달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해 약 24억원의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을 모으며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달성했

다. 이는 전년 대비 2.6배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중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남광주시장 자연축산의삼겹살·목살 역시 신청 건수 7037건을 접수, 2억원가량의 매출액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데, 업체 측이 같은 가격으로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양과 좋은 품질의 고기를 제공한 것이 더 많은 기부자를 끌어들이는 요인이 됐다.

이 과정에서 동구 직원들의 역할도 컸

다. 타 지자체에 비해 특산물 등이 부족한 동구의 지리적 특성을 타개하기 위해 담당 직원들은 전통시장을 누비며 우수한 답례품 업체를 모색했다. 기부자들의 계속되는 주문으로 일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직원들이 택배 포장 지원에 나서는 등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손길을 더하기도 했다.

민관이 협력한 성공적 ‘선순환’ 사례에 남광주시장을 비롯한 다른 지역 업체들도 답례품 업체로 동참하는 추세다. 동구는 최근 답례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특미참기름’, ‘해뜨랑 협동조합(소내장 추어

탕)’, ‘최재호 김치’, ‘그린스토어(홍어 무침)’, ‘유명떡집(수제한과)’, ‘영광굴비(구운 갑오징어·보리굴비)’ 등 총 6곳의 업체를 신규 선정했다. 동구는 앞으로도 기부자와 지역 소상공인 모두의 만족을 위한 답례품 추가 발굴·구성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기부자들에게 만족스러운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맨발길3곳·청소년 쉼터 조성  
남구, 5월부터 사업 본격화

광주 남구가 푸른길 공원 맨발 산책로와 청소년 쉼터 조성 사업을 본격화한다.

13일 남구에 따르면 푸른길 공원 보행 환경 개선 및 청소년 쉼터 조성 사업이 오는 5월부터 시작된다.

먼저 맨발 산책길은 푸른길 공원 숲길에 위치한 대성여고 입구쪽과 한신아파트, 장산초등학교 인근에 3곳이 마련된다.

주변 조명 설치와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푸른길 공원 맨발 산책로와 청소년 쉼터 조성에 소요되는 기간은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 가량 될 것으로 보이며 청소년 쉼터는 중·고등학교가 밀집한 동성고 입구쪽에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독서·휴식 공간은 푸른길 도서관과 가까운 곳에 있는 지점에 조성되며, 장산초등학교에서 주월 빚어울채 아파트 사이 숲길에는 주민 쉼터도 들어선다.

남구 관계자는 “관내 주민들이 푸른길 공원에서 휴식과 독서 등 여가 및 문화생활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심 속 테마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준 기자

‘우리두리 작은결혼식’ 모집  
북구, 청년 부부 총 3쌍 선발  
웨딩홀 대관, 예복 대여 등

광주 북구는 청년 부부에게 무료로 결혼식을 열어주는 ‘우리두리 작은결혼식’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우리두리 작은결혼식’은 소박한 결혼 문화를 장려하고자 구비 1000만원을 투입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예비)청년 부부에게 웨딩패키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만 19~39세 청년 중 본인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소가 북구이고 중위소득이 130% 이하면서 경제적 어려움 등 개인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로 오는 30일까지 총 3쌍의 부부를 모집한다.

대상자 선정은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정도 및 신청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오는 5월 중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최종 지원 대상자에게는 △웨딩홀 대관 △예복 대여 △헤어·메이크업 △사진 촬영 및 앨범 제작 등 예식 서비스 전반을 지원한다.

북구는 이번 사업에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작년까지 합동으로 진행했던 결혼식을 올해부터 개별결혼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예비)청년 부부가 희망하는 날짜를 우선으로 해 오는 9~10월 중 문흥동 까사디루체 웨딩홀에서 본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부부는 북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지 사항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사업수행기관인 우산종합사회복지관에 방문 제출하거나 이메일(woosanbokji@hanmail.net)로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산종합사회복지관(062-266-3851)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 및 개인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청년 부부에게 평생 남을 추억을 선물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결혼식 지원을 비롯해 출산 및 육아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2019년부터 ‘우리두리 작은결혼식’ 사업을 시작해 총 20쌍의 취약계층 부부가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정승우 기자



광주 서구는 지난 11일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정서 지원을 위한 ‘행복한 동행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광주 서구 제공

## 서구, 치매 환자·가족 대상 ‘힐링 프로그램’ 운영

나주에코왕곡서 ‘탄소중립’ 활동  
“치매친화” 환경 조성 노력할 것”

광주 서구는 지난 11일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정서 지원을 위한 ‘행복한 동행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치매 환자와 돌봄 부담으로 야외 활동의 기회가 적은 가족들

에게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제공하고 치매에 대한 이해와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치매 환자와 가족 등 24명은 나주에코왕곡을 방문해 멀티빔, 수제청 만들기 등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치매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해경 서구치매안심센터장은 “치매는 가족 모두가 함께 고통받는 질환인 만큼

정서적 회복과 심리적 지지를 위한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치매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위생용품 지원’, ‘실종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보급’ 등을 통해 치매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준명 기자

## 광산구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과태료 부과해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건의

광주 광산구가 경찰청에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13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광주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를 시행 중이다.

신고 접수 뒤 일정 유예 시간 동안 전동킥보드가 수거되지 않으면 견인하고, 대여업체에 1만5000원의 견인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다만 인력뿐 아니라 장비, 보관 장소 등

으로 인해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고, 대여업체의 노력을 유도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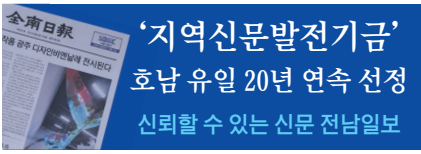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불법·정차를 제재하기 위한 입법 논의는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광산구는 최근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수성을 반영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전국 모든 지자체가 일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단속 기준과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련기관 등에 법 개정을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



서구, 아동·청소년 목소리 담는다  
12일 청소년구정참여단 발대식  
사업모니터링·모의국회 등 체험

광주 서구는 지난 12일 청사 들불홀에서 ‘제10기 청소년구정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역 초등학교생과 중·고등학교생 등 총 5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구정참여단은 오는 11월까지 각종 정책과 사업, 생활환경을 청소년 입장에서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요 활동사항은 △‘착한서구’ 구정사업 모니터링 △솔로몬파크 법정 체험 △정책 토론회 △아동권리 홍보 △모의국회 체험 △정책 제안 대회 참여 등이다.

또한 ‘맨발로’, ‘천원국시’, ‘착한가게’ 등을 직접 방문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주요 정책들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대학생 서포터즈 10명이 팀별 멘토로 참여하면서 정책 이해를 돕는 활동을 지원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청소년구정참여단은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중요한 주체”라며 “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지난해 청소년구정참여단 제안을 정책에 반영해 서구 소재 중학교 3곳에서 ‘찾아가는 PM(개인형이동장치) 교통안전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윤준명 기자